

전북군산형 일자리, 초심 찾아 '새롭게'

도, 일자리 분야현안 브리핑...국감·도의회·언론 등 군산형일자리지적사항설명·군산전기차클러스터구축이행의지확인쟁점해명

에디슨모터스 사태로 군산형 일자리에 대한 논란이 생기는 가운데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19일 에디슨모터스 관련 쟁점과 군산형 일자리 부차, 고용 생산 지연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군산 전기차 클러스터 구축 사업계획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기차 기업이 지역에 안착하는데 최소 5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군산형 일자리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에 영향을 미치거나, 성과를 나타내기도 전에 전기차 산업에 악영향이 우려돼 그간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에디슨모터스(주) 관련 쟁점은 크게 3가지로 △경영진 구속 △사업 지속 가능성 △중국산 부품 조립 문제이다.

먼저, 도는 에디슨모터스 경영진 구속에 대해서는 "에디슨모터스의 계열사인 에디슨EV의 주가조작 혐의로 A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군산형일자리 정상 추진에 장애가 발생하여 안타깝다"면서, "경영진의 일탈 여부는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그와 별개로 군산형 일자리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디슨모터스 군산공장의 사업 지속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320억 원의 부자가 완료됐으며, 준공 1년 만에 매출액 200억원을 달성하고 신규 채용 97명 중 89%를 지역인재로 채용한 상황이며, 정상화를 위한 매각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쌍용차 인수 실패로 자금 경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다만 현재도 전기버스 주문 물량이 있으므로, 적절한 인수자가 나타나 자금난을 해결하면 정상화 여지는 높은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군산공장의 중국산 부품 조립 문제에 대해서는 신규차종 개발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는 가격 부담을 고려해 국산화가 될 될 상태로 반제품 방식(SKD, Semi Knocked Down)으로 조립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은 다수 자동차가 반제품 방식 또는 완전체 조립 방식(CKD, Completely Knocked Down)으로 완성차를 제작하고 자본과 기술 축적 이후 자체 개발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군산형 일자의 주요 핵심

가치는 참여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로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현재 62% 수준인 국산화율을 2025년까지 96%로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군산형 일자리 투자, 생산, 고용은 명신의 위탁생산 지연, 대창모터스 준공 지연 등으로 올해 계획 대비 투자는 77%, 고용은 19%, 생산은 17% 수준으로 저조한 상태다.

하나 (주)명신의 미국 페라데이퍼처사와 체결된 본계약은 유효하며, 이집트와 마이크로커브스·E-룩북 본계약 건은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유수의 기술기업(Startup)과 사업계획을 다변화하고 있다.

또한 (주)명신은 34건 특허와 핫스탬핑* 기술로 테슬라,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24년 본격적인 대량생산 전까지 부품 수입 조립생산 경험을 축적하고 미국·유럽 등 위탁 생산기지를 시작으로 연구개발 기술력을 축적해 자체 모델을 개발 양산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주)대창모터스는 연내 군산공장을 준공하고 생산라인 설치가 완료되는 대로 배터리카와 다리고 시리즈 신차를 생산한다. 대창모터스는 지난 7월말

소형 전기화물차 '다리고-C'와 전기탑차 '다리고-T'를 출시했으며, 자체 BMS기술 등 18개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자율주행 로봇셔틀 민트B를 컨소시엄 개발 완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주)코스텍도 군산형일자리 생산을 위한 공장 인수를 완료하고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11월부터 명신 등 부품 납품을 위해 공장이 가동된다. 코스텍은 명신 등에 납품할 전기차 부품 13종(구동, 전장, 제어, 내외장)을 연구개발하고, 군산형 일자의 제품 국산화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운동목 전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군산형 일자리가 응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군산 산업·고용위기 등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상상 협력하며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글로벌 경기침체와 에디슨모터스의 상황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군산 전기차를 클러스터가 활발히 가동될 2025년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군산형 일자리에 협력할 기업을 추가로 발굴하고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향토음식 발굴·육성 자리 마련

20~28일, 제16회 전북향토음식문화대전 개최 향토음식에 대한 도민 자긍심 고취·우수성 인지도 기여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맛의 고장 전북!'이라는 키워드로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자 제16회 전북향토음식문화대전을 개최한다.

월드컵경기장 일원에서 향토음식 전시·체험관 운영,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건강밥상 클래스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 아울러 온라인 메타버스 전북향토음식문화대전관 구축·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향토음식 전시·체험관에서는 20~24일까지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모형을 전시하고, 도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 행사장에서는 메타버스를 구축한 체험관을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메타버스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오프라인으로 향토음식 전시·체험 뿐 아니라, 아트스텝스 앱을 통한 온라인 메타버스 전시관으로 조리경연대회 라이브 방송, 향토음식 전시·체험관 등 음식문

화대전의 주요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체험을 원하는 도민은 국제발효식품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악을 하면 된다.

조리경연대회는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 학생) 부문에서 40여팀이 참여하여 전북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경연을 펼칠 계획이다.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에게는 상장을, 수상업체에는 우수인증 명패가 수여된다. 아울러 향토음식부문에 참여업체에는 온라인 홍보 특권이 제공된다.

대회에 참가 희망하는 도민은, 10월 19일까지 국제한식문화재단에 이메일(ccik2012@daum.net)로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28일에는 향토음식 발전을 위한 포럼과 고메소가 열린다. 향토음식발전 포럼에서는 '세계인의 밥상위에 오르는 전라북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고메소 행사에는 '전북향토음식 9참반상' 시연을 하면서 향토음식 발전을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 안전보건네트워크, 산업재해예방 협업 강화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감소·안전문화 확산 위한... '사고사망재해예방 결의대회·안전 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는 19일 군산 리츠프라호텔에서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고사망재해예방 결의대회 및 안전 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11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안전보건네트워크 이동원 총회장을 비롯해 김인태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전현철 전주고용노동지청장, 이후송 익산고용노동지청장, 송효근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 등 기관대표와 건설·제조·서비스업 협회별 대표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2 사고사망재해예방 선포식 및 청렴 결의문 낭독, △우수 안전보건인 표창, △안전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참여자들은 사고사망재해예방 선포식 및 결의문을 낭독하며, 노동자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문화 조성에 힘쓰



전북도와 전북 안전보건네트워크는 19일 군산 리츠프라호텔에서 도내 산업체의 산업재해 감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고사망재해예방 결의대회 및 안전 보건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기로 다짐했다. 또한 총 20명에게 전북도지사(6명), 고용노동부 지청장(9명), 안전보건공단 전북본부장(2명), 전북 서부지사장(3명) 표창을 수여하며, 관계자 사기도 고취했다.

더불어 도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

소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및 안전보건 개선을 강조하는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최종 선정된 6명에게 전라북도지사상(1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1명) 및 안전보건네트워크상(4명)을 수여했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재해예방 결의대회를 통해 유관기관간 협업을 강화해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19일 전주비움센터 2층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희망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

도, 희망 2022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54개 표창패 전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희망2022 나눔캠페인 유공자 시상식'이 19일 전주비움센터 2층 그랜드호텔에서 진행됐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희망2022 나눔캠페인' 기간 동안 적극적인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기관·단체 공무원을 표창했다.

이날 행사는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

지사,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김동수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유공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기관 및 단체에 54개의 표창패가 전달됐다.

도지사 표창 13명, 전라북도의회 의장 표창 6명이 희망2022 나눔캠페인 유공자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표창은 이웃돕기 부흥회 배부서 부흥회에서 각각 15명, 20명에게 수여했다. /김경수 기자

2022.09.22. **축! 전주매일 창간 60돌** **질병관리청**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동절기 추가접종을 실시합니다.

사전예약 9월 27일(화)부터~ | 접종시작 10월 11일(화)부터~

우선접종대상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요양병원·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등 건강 취약계층부터 시행 단계적 확대	백신종류 BA.1 기반 2가백신 다만 mRNA 백신 이상반응 등으로 고가연기 대상자이거나 mRNA 백신 접종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무인자동화 백신도 가능 *노바백스백신, 스카이로백스백신
접종간격 마지막 접종일 또는 확진일 기준 *4개월 이후 접종 4개월	접종일정 사전예약: 9월 27일(화)부터~ *10.11.19일부터 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www.covid19.go.kr) *도민예약가능 *전화예약 (0339 또는 지자체콜센터) 당일접종: 카카오톡 / 네이버 간편예약 *의료기관 우선 연락

*기사사항 전액백신에 한하여 18세 이상 성인 기초접종 완료자에게 접종 허용

건강 취약계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세요!
 📞 진안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063-430-868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